



# GILLETTE MIND

Ferdinando Frega — Nando the Scribe

# GILLETTE의 정신

THE SYSTEM · 01

---

이것은 흔한 게시물도 아니다. 세상에 내보내야 할 것 같은 흔한 소식도 아니다. 이것은 한 사람의 삶에 새겨진 채 남는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다.

내가 처음 글씨를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겨우 3살이었다. 아직 펜도 연필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지만, 내가 처음으로 그려 낸 것은 삼각형이었다.

나의 아버지는 놀라셨다. 나의 어머니는 우연이라고 여기셨다 — 어머니는 나에게 다시 해 보라고 하셨고, 그것은 점점 작아졌지만 언제나 삼각형이었다.

자라면서 아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지 않았다. 그러다 어느 날, 가톨릭 기숙학교에서 나는 그 안에 하나의 기도가 살고 있음을 깨달았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.

그것은 완전함이었다 —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. 두 개 이상의 삼각형을 합치면 사각형이 되고, 사각형이 완전한 기하학적 도형이라는 생각은 한순간에,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무너졌다.

그리고 Gillette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을 보내는 동안, 어떤 회의에서도 “문제를 사각형으로 만들자”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. 대신 들리는 말은 — 그리고 그것이 옳았다 — 이것이었다. 상황을 삼각 측량하자, 약한 영역과 강한 영역, 그리고 개선할 가치가 있는 영역을 찾아내자.

오늘 나의 삼각형은 Gillette 사가의 마무리다. 목표로서가 아니라, 계획으로서가 아니라 — 글쓰기의 본능으로서, 그리고 깊은 존경을 담은 단 하나의 행위로서.

읽으러 올 모든 이에게: 조금씩. 결코 한꺼번에 다 읽지 마라.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제대로 거르지 못한다.

여정을 즐겨라.

환영한다.

*Nando*